

격조사 교체 현상에 대한 통사· 미적 논의의 재검토 : 조사류의 새로운 질서를 토대로

(Re-examination of the so-called case alternation in Korean :
based on a new order of 'josa' system)

목정수*

요약

이 글은 격조사 교체 현상에 대한 제반 논의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어디
서 유래하는가를 밝히려는 메타적 성격의 비교론적 시도이다. 한국어의 특
성으로 거론된 이중주어구문, 이중목적어구문, 목적어상승구문, 심리동사구
문, 터프구문 등에서 나타나는 격조사 교체 현상에 주목한 기존 논의들은
이론적 입장을 떠나 공히 {가}와 {를}을 격조사로 보는 데서 출발하고 있
다. 따라서 기존 논의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론에 기반한 개념을 수정·보완하는 작업보다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한국어 조사 체계의 근본 질서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검토하는 작
업이 선행작업으로 요구된다고 본다. 기존의 조사 체계를 해체하려는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구조적 시각을 견지하고 조사類의 분포 양상
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한 결과, 한국어의 모든 명사는 문법적 실현이
두 차원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 차원은 명사가 서술어나
다른 명사와 맺는 통사적 기능을 표시하기 위한 문법관계 표지의 실현 장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소이고, 다른 차원은 격실현 명사구의 외연범위를 정해주는 限定詞(=관사)가 실현되는 위치이다. 이러한 조사류의 새로운 질서를 토대로 보면, 기존에 격조사로 분류되던 {가}와 {를}은 본질적으로 격조사가 아니라, {도} 그리고 {는}과 더불어 동일 부류, 즉 한정사 범주를 구성하는 성원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격조사 교체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영형태의 문법관계 표지 $\{\phi_1\}$ 와 영형태의 한정사 $\{\phi_2\}$ 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기존 논의에서 흥미롭게 다루었던 ‘{에서} \circ {가}’, ‘{의} \circ {가}’, ‘{에게} \circ {를}’, ‘{로} \circ {를}’ 등의 교체 현상은 엄격한 의미에서 교체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은 동일 패러다임에 속하는 성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교체 관계는 격조사(=문법관계표지) 계열의 성원들 사이—‘{에} \circ {로}’, ‘{에게} \circ {와}’, ‘{의} \circ $\{\phi_1\}$ ’, ‘{로} \circ $\{\phi_1\}$ ’ 등등—나, 보조사(=한정사) 계열의 성원들 사이—‘{가} \circ {를}’, ‘{가} \circ {는}’, ‘{를} \circ {도}’, ‘{가} \circ $\{\phi_2\}$ ’, ‘{를} \circ $\{\phi_2\}$ ’, ‘ $\{\phi_2\}$ \circ {는}’ 등등—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1. 서론

1.1 논의의 목적

한국어의 주요 통사적 특성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구문들의 대응 현상은 학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는 대체적으로 ‘(격)조사 교체(alternation) 현상’으로 통칭되어 온 듯하다.

- (1) ㄱ. 철수**에게** 돈이 많다.
 ㄴ. 철수**가** 돈이 많다.
- (2) ㄱ. 코끼리**의** 코가 길다.
 ㄴ. 코끼리**가** 코가 길다.
- (3) ㄱ. 영화는 철수**에게** 책을 주었다.
 ㄴ. 영화는 철수**를** 책을 주었다.

- (4) ㄱ. 나는 칠수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ㄴ. 나는 칠수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5) ㄱ. 난 호박죽이 먹고 싶다.
 ㄴ. 난 호박죽을 먹고 싶다.
 (6) ㄱ. 이 책을 읽기가 어렵다.
 ㄴ. 이 책이 읽기에 어렵다.

이러한 현상들은 특히, 생성문법이 도입된 이래로, 영어의 관련 현상들과 함께 뜨거운 논쟁거리를 제공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중 주어/목적어 구문’, ‘주격/대격 중출 구문’, ‘목적어 상승 구문’, ‘동일 명사구 생략’, ‘주제화’, ‘성분 주제화’, ‘어간 분리’, ‘터프 구문’ 등의 명칭으로 쟁점화 되었고, 이와 같은 한국어의 통사론적 특성은 한국어의 고유성으로 지적되는가 하면, 더 나아가 다른 언어와의 관련하에 보편성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예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이 다양한 언어이론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왔나를 시기별로 또는 학파별로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논의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어디서 유래하는가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메타적이라고 할 수 있다.¹⁾

우리는 생성문법이든 전통문법이든 한국어의 통사론적 논의의 다양성과 혼란은 기본적으로 ‘격(cas)’ 개념과 ‘활용(conjugaison)’ 개념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인식, 그로 말미암은 용어의 혼동과 무질서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 입장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따라서 ‘격조사 교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격 개

1) 이러한 논문의 성격 때문에, 저마다 달리하는 논의들을 그것들이 바탕을 두고 있는 이론 내에서 철저히 비교·고찰하는 일은 논외가 된다. 이 때문에 생길 지도 모르는 오해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며, 이 논문의 한계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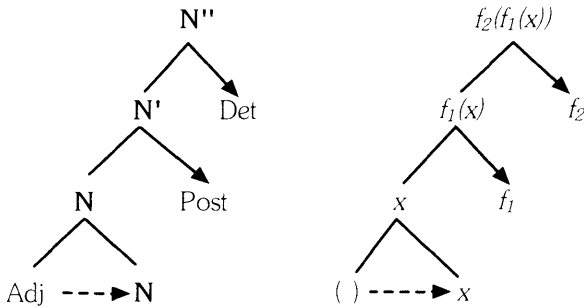
념을 출발선상에서 재검토하고, 여러 가지 용법의 소유자인 격이란 용어 자체를 해체(déconstruction)하여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²⁾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한국어의 명사구 확장 체계를 통해 격조사 체계가 어떻게 짜여져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이것이 바로 소위 ‘격조사 교체 현상’에 대한 제반 논의의 성격과 그 한계를 지적하는 이론적 발판이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생성문법 계열과 기능문법 계열의 대표적 논의를 임의적으로 선별·소개하고, 그것들의 虛와 實을 지적해 본다. 아울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논의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풀릴 수 있는가가 제시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고га 취하는 시각에서 한국어 문법 전반이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가를 전망해 본다.

1.2 연구 방법론

목정수(1989)는 인구어에서 독립된 범주로 인식된 관사(article)를 보는 여러 시각을 비교해 그것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시도를 한 바 있다. 그리고 목정수(1998)은 한국어 명사구의 확장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격일반의 문제가 언어 유형에 따라—인구어든 알타이어든 관계없이—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후기 구조주의에 속하는 프랑스 언어학자 Guillaume의 정신·심리역학론(psychomécanique du langage)의 입장에서 관사를 보는 시각을 원용하면, 한국어 조사 체계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사 체계의 새로운 질서 확립은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조사 실현의 분포에 의해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2) 이는 그 용어에 입혀진 혼절적인 내용의 옷을 벗겨 그 실체를 정확히 보자는 데리다식의 해체주의를 연상시킨다(Derrida(1967)을 참조).

미국식 구조주의 즉, 분포주의적 시각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논의의 기반은 언어유형론적·구조주의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의미적 직관을 가급적 배제하고 특정 이론에서 주어지는 언어학적 선입 개념과 용어에서 탈피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조사류의 분포를 총체적으로 기술한 결과, 불어나 한국어의 명사구 확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틀을 정립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된다.³⁾



3) 이 그림에 대해서는 목정수(1998)를 참조할 것. 편의상 주의할 사항 몇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Adj는 수의적 성분인 형용사류로서, 그것의 명사예의 첨가는 명사에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므로 점선으로 의존관계만 표시했음에 유의할 것. 2) Post는 명사 바로 뒤에 후치하는 문법관계 표시 즉, 격조사를 가리키며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의}, {에/에게}, {에서}, {로}, {와} 등이 대표적이다. 3) Det는 한정사 즉, 인구의어 관사범주에 대응되는 부류명이며 여기에 속하는 요소로는 {가}, {를}, {도}, {는} 뿐이다. 4) N은 잠재명사로서 후행 문법적 요소가 아직 붙지 않은 상태의 명사를 말한다. 5) N'는 무표적으로나 유표적으로 격조사가 붙은 문법관계가 실현된 명사를 말한다. 6) N''는 한정사가 결합하여 담화지시적 기능이 실현된 결과명사를 말한다.

1.3 언어자료의 성격

현대 언어학의 대부분의 논의는 문어체 문장 그 중에서도 논리적 문장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형식문법이나 형식의미론에서는 자연스런 인간의 언어활동 과정에서 산출되는 발화체를 형식화(formalisation)하여 표상(représentation)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듯 하나, 사실은 언어를 논리 형태(forme logique)로 환원시켜 그 구조를 형식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자연언어가 언어학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명제(proposition)로 가공된 인공어적 성격의 자료가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구어문법의 중요성이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진공 상태에서 언어학자들이 꾸며낸 것이 아닌 실제 담화 상황에서 사용된 또는 사용될 수 있는 구어체 발화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언어학적으로 보다 의미있는 자료는 언어활동의 주체인 화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독백처럼 내뱉는 말이 아니라, 화자가 청자를 선행조건으로 하여 자신의 의도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산출한 발화체(énoncé)이기 때문이며, 후자의 언어자료가 언어의 형태가 의미를 담아내는 과정과 실재를 가장 자연스럽고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문법이나 구조주의 언어학, 생성문법 계열의 논의에서 별 문제 삼지 않았던 다음과 같은 문장은 우리 논의에서는 가급적 다루지 않는다.

(1) ¬.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⁴⁾

4) 이 문장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우리는 이 문장을 'Lxy, L=love x=철수 y=영희' 식의 논리화된 의미로 박제된 문장으로서 다루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같은 형식이라도, 실제로 담화 현장에서 사용된 발화체, 즉 “오분 이내로 식사를 한다. 실시!”, “아빠, 장난감 안 사주면,

ㄴ. 철수가 동생이 사과가 먹고 싶다.⁵⁾

물론 위의 두 문장이 서술문이나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쓴 소설의 해설부분에서 찾아지거나 독백 형식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대화의 現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된 발화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논의에서 제외된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성격의 발화체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언어자료이다.

- (2) ㄱ. 철수는 영희를 사랑해.
ㄴ.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니/고!
- (3) ㄱ. 철수가 떡이 먹고 싶은가 봐.
ㄴ. 철수는 떡이 먹고 싶대.

2. 한국어 명사구 확장 체계: 조사체계의 새로운 질서

한국어의 조사類에 대한 연구는 어미類와 더불어 한국어의 형태·통사 구조를 밝히는 데 머리와 다리가 되는 중요한 분야라는데 異見이 없을 것이다. 조사류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집중되어 선학들의 훌륭한 업적이 상당량 축적된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정수(1998ㄱ, ㄴ, ㄷ)에서는 유형론적 시각에서 한국어를 주로 인구어의 불어와 비교하고, 조사류의 분포를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나 인제 밥 안 먹는다”나 “하,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이를 어쩌나”, “그래 잘 한다, 잘해” 따위처럼 화용론적 의미를 담아내는 생생한 발화체들은 우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 5) 실제로 이런 따위의 논리적 명제의 성격을 띠는 문장을 대상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實例로 김선웅(1996:259)에서 격접 감 논의와 관련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예문을 그대로 가져와 보았다.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였다. 본고의 논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는 피하고 지금까지 얻어진 결과만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2.1 한국어의 유형론

유형론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어의 格實現 양상은 라틴어가 아닌 불어의 그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유형론에서 불어를 막연히 굴절어로 분류하던 태도는 반성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어의 조사 특히, 격조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해서는 격 개념을 원래의 의미—서술어와 해당 논항의 문법적 관계(=통사적 기능) 표지—로 다시 돌이킬 필요가 있고, 그 순수성을 회복시켜야 될 것이다.

이처럼 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국어의 조사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기존에 주격조사와 대격조사로 처리되어오던 {가}와 {를}이 격조사 계열에 소속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 {가}와 {를}은 보조사로 불리던 {도}, {는}과 동일 계열체(paradigme)를 구성하는 성원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동일 부류의 기능과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고, 또한 그 부류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우리는 기존에 사용되던 보조사나 특수조사라는 용어보다는 실질적 의미를 좀더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실제 생성문법 계열의 학자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는 한정조사(delimiter)라는 용어를 받아들여, 우리는 이를 한정사(déterminant)로 명명하였다. 그런데 이 ‘限定詞’란 용어는 기존 한국어 문법에서 ‘冠形詞’로 분류되던 ‘한’, ‘이/그/저’, ‘새’ 등의 형태소를 가리키는 것과 겹치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는 한정사 옆에 괄호를 붙여 ‘(=관사)’라는 토를 달아 우리가 한정사란 용어로 의도하는 바를 분명히 하였다.⁶⁾

한국어에 한정사(=관사)라는 범주를 설정하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사를 어떤 범주로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그러한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인구어의 관사를 명사의 외연범위를 정해주는 형식적 한정사(déterminant formel)로 정의하고, 그것의 담화지시적(énonciatif) 기능에 주목하게 되면, 기존 한국어 조사의 분류체계가 다소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실제 언어자료에 비추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형론적 시각에서 관사의 기능이 한국어에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가를 따져 보고, 그 기능 요소들을 비교해 보면 되는 것이다. 결국, 한국어의 助詞중에서 일부—{가, 를, 도, 는}—는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는 폐쇄적 부류로서, 관사의 기능에 대응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토대로 한 주장이 몰고 올 파장은 문법 전반에 번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보다 명확해지고 구체화된다면, 용어나 선입견 때문에 한국어의 현상이 이론적 입장에 따라 다소 왜곡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고, 서론에서 제기된 ‘격조사 교체 현상’과 관련된 문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어질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차원의 언어학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2.2 한국어의 격실현 양상

목정수(1998ㄱ, 나, 다)은 한국어 조사류 중에서 격조사의 목록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통사적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가를 총체

-
- 6) 관사라는 용어 자체는 사람이 머리에 모자를 쓴듯, 인구어의 명사의 왼쪽 앞에 놓이기 때문에 일본학자들이 붙인 용어이므로, 한국어에 그 용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다만, 명사 끝에 붙는 점을 고려하면, 限定詞(dé-termin-ant)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할 것 같다.

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한국어의 서술어를 중심으로 그 논항과 맺는 문법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제에 의해 상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어, 목적어, 처소어 등의 통사적 기능은 주로 서술어-논항의 의미 관계와 논항의 의미자질, 상대적 어순에 의존해 실현되는 것이다.

2.2.1 의미논항 관계

먼저, 한국어의 유표적인 문법관계 표지가 없이 실현될 수 있는 통사적 기능의 범위를 알아보자.⁷⁾ 통사적 기능은 담화차원에서 실현되는 이차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칭은 적당히 기존에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예문 옆에 병기하기로 한다. 다음 예들을 보자.

- (1) 이 엄마가 죽으면, **철수** 너 어떻게 살아갈래? (주어)
- (2) 네가 그 유명한 **츄스키** 이랬다. (주격보어)
- (3) 철수야 빨리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직접목적어)
- (4) 응, 그거! **열집 할아버지** 갖다 드리게. (간접목적어)
- (5) **유치원** 보내는 데도 돈이 어찌나 많이 들던지. (처소어)
- (6) 철수는 **지 아빠**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애. (비교어)
- (7) 우리 엄만 철수만 보면, **수양아들** 삼고 싶어 하셔. (목적격보어)

그런데 위의 예들은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후치사들이 유표적으로 덧붙은 예문들과 평행하게 통사적 기능이 해석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로 설정된 통사적 기능에 대응되는 유표적 표지는 없다는 점이다.⁸⁾

7) 기존에 유표적인 격조사가 붙지 않고 실현된 명사를 부정격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시도에서는 부정격이 담당할 수 있는 통사적 기능을 주어, 목적어, 소유어로 국한시켰으나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이남순(1988)를 참조).

- (1') 이 엄마가 죽으면, 철수 네-(¹가) 어떻게 살아갈래? (주어)
- (2) 내가 그 유명한 촌스키-(¹가) 이랬다. (주격보어)
- (3) 철수야 빨리 아침-(²을) 먹고 학교 가야지. (직접목적어)
- (4) 응, 그거 옆집 할아버지-~~께~~ 갖다 드리게. (간접목적어)
- (5) 유치원-~~에~~ 보내는 데도 돈이 어찌나 많이 들던지. (처소어)
- (6) 철수는 지 아빠-~~와/하고~~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애. (비교어)
- (7) 우리 엄마 철수만 보면, 수양아들-로 삼고 싶어 하셔. (목적격보어)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의미관계나 어순에 의해 영형태로 통사적 기능이 드러난 예와 유표적인 문법관계 표지에 의해 간접적으로 통사적 기능이 드러난 예는 그 실현된 기능이 대응될 수 있으나, 결코 의미효과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 예의 격조사 有無와 相異에 따른 수용성의 차이를 고려해 보라.

- (8) ㄱ. 하늘{ Φ_1 } 날아다닐까, 구름 따라다닐까, 햇님에게 물어보세.
 ㄴ. ^{??}하늘{에, 로} 날아다닐까, 구름 따라다닐까, 햇님에게 물어보세.
- (9) ㄱ. 철수는 영희에게 미희{ Φ_1 } 소개를 했다.
 ㄴ. ^{??}철수는 영희에게 미희{의} 소개를 했다.

2.2.2 의미자질과 어순에 의한 격실현

다음 예문을 비교해 보자.

- (10) ㄱ. 철수야, 우리 선생님도 일본영화 실락원 보셨을까?
 ㄴ. 철수야, 일본영화 실낙원 우리 선생님도 보셨겠지?

위의 (10ㄱ, ㄴ)에서 ‘보다’라는 술어의 논항으로 주어진 ‘우리 선생님’과 ‘일본영화 실락원’은 그들의 의미적 자질 때문에 순서에 관계없

8) 아래 (1'-3') 예문에서 조사 {가}와 {를}을 괄호로 묶어 표시한 것은 이들을 격조사로 보는 전통적 입장에 따라 한 것에 불과하지, 우리가 그 견해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주어와 목적어의 통사적 기능을 중의성(ambiguïté) 없이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보듯이, 주어자리와 목적어자리에 동일한 의미자질을 지닌 명사가 나올 때 중립적인 문장구조에서는 먼저 오는 명사구가 주어로, 후행하는 명사가 목적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거의 절대적이다. 아무리 운율적인 요소를 가미해도, 전형성이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⁹⁾

- (11) ㄱ. 철수 영희 좋아하니?
 ㄴ. 영희 철수 좋아하니?

전형적으로는 (11 ㄱ)의 ‘철수’는 주어로, (11 ㄴ)의 ‘철수’는 목적어로만 해석된다.¹⁰⁾ 논항 두개가 동일 자질—[+유정animé]—을 가질 때, 그 통사적 기능이 무표적으로 { Φ_1 }에 의해 실현되면 어순에 따라 제일 먼저 위치한 것이 주어로 해석된다.

9) 여기서 ‘거의 절대적이다’,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문제삼은 듯. 어느 익명의 심사자는 문법관계가 어순에 의해 실현되는 확률 즉, ‘철수 영수 때리다’에서 ‘철수’가 주어로, ‘영수’가 목적어가 되는 확률이 꼭 100%가 아니라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 ‘거의’라는 표현을 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철수’가 목적어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그런 일은 (거의)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요점은 발화체 내에서의 논항들이 각각의 위치에 의해서 기능이 표시될 수 있는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언어의 선조성이라는 특성에 말미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요소의 상대적 위치 즉 어순의 폭은 기껏해야 진치 아니면 후치여서 경험의 제요소가 그들 간에 맺는 복잡한 관계를 모두 나타내기에는 매우 한정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목정수(1998:260)을 참조). 따라서 어순은 문법관계 실현에 상관적으로 작용하는 기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10) 이런 점에서 한국어의 특성으로 들고 있는 ‘어순 자유성’의 개념이 다시 반성되어야 한다. 한국어도 다분히 어순의 제약을 받는다. 이는 언어보편적이라 생각된다.

2.2.3 필수보어와 부가어

어순이나 의미관계, 논항의 의미자질 등의 상관적 기제에 의해 통사적 기능을 부여받게 되는 그 분석된 격이 통사적 기능상 좌초되어(stranded) 문법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필수적으로 유표적인 문법관계 표지에 의해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한국어의 필수논항(complement)과 수의논항 즉, 부가어(adjunct)의 구분을 위해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12) ㄱ. 어머니는 떡 썰는 것으로 돈을 많이 버셨지.
 ㄴ. 할아버지께서 작두(Φ_1 , 로) 여물(을) 썰고 계시네.
- (13) ㄱ.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면, 괜히 눈물이 나.
 ㄴ. 밤하늘(이) 별들(Φ_1 , 로) 반짝일 때면, 마음이 설레곤 했지.

2.2.4 종합

문법관계 표지로서 기능하는 조사류—기능 단소—의 목록을 설정하는 작업은 명사 문법의 뼈대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하다. 보편적으로 문법관계 표지의 부류를 구성하는 성원들의 수는 제한되므로, 이 유표적인 문법관계 표지들과 대립관계에 놓이는 영형태의 문법관계 표지 $\{\Phi_1\}$ 를 설정하게 되는 것은 구조적 시각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하겠다.¹¹⁾

11) 零形 관계표지에다 지수 1을 붙인 것은 전체 논의를 통해서 이해되었지만, 한국어 명사확장이 두 자리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한정사 부류와 대립하는 영형태소 즉, 零形 한정사 $\{\Phi_2\}$ 와 구분하기 위한 조치이다.

2.3 한국어의 한정사(=관사) 범주 설정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조사 {가}와 {를}을 문법관계 표지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피상적인 언어현상을 보면, {가}와 {를}은 통사적 기능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일견 모순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사류의 질서를 통하여 풀어내는데 성공하였다(목정수(1998: 1, 2) 참조). 우리는 {가}와 {를}의 쓰임이 통사적 기능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것의 본질이 명사의 통사적 기능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펼쳐질 ‘격조사 교체 현상’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하나의 徒勞로 돌아갈 것이고, 반면에 그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증명된다면, 우리의 논의는 언어사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와 {를}을 {도}, {는}과 동일부류로 묶고, 그 부류명을 한정사(=관사)로 설정하려는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제시하겠다.

2.3.1 조사류의 분포

먼저 다음과 같은 조사 분포의 제약을 살펴보자. 전후 문맥 없이 단절적으로 아래 문장만을 보면, 다음과 같이 문법성이 매겨질 것이다.¹²⁾

12) 아래 예문의 문법성 판단은 그 문장들을 고립된 진공 상태가 아닌, 담화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면 달라질 수 있다.

(1) ^[2]된 소리야, 철수를 잔다니? 말도 안돼.

(2) ^[2]이 반대떡이 어떻게 싫어할 수 있겠어!

참고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익명의 논문 심사자로부터 문장의 문법성에 대한

- (1) 철수(가, *를, 도, 는) 잔다.
- (2) 난 빈대떡(이, 을, 도, 은) 참 싫어한다.

우리는 이러한 분포상의 제약의 차이가 {가}와 {를}이 같은 위상의 범주내에서 서로 대립하여 의미적 영역을 상보적으로 나누어 갖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가}와 {를}은 {도}, {는}과 다른 부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동일 패러다임에 속하는 성원들이라고 본다. 우선, 그들의 결합관계의 제약이 우리의 논의의 지지해 주는 강력한 논거이다.

- (3) ㄱ. *철수-가-는, *철수-가-도, *철수-를-은, *철수-를-도
 나. *철수-는-이, *철수-는-을, *철수-도-가, *철수-도-를

다음의 연쇄형들은 이처럼 {가}와 {를}이 {도}와 {는}과 평행하게 소위 격조사로 설정된 것들과의 결합가능성을 보여준다.

- (4) ㄱ. 철수-에게-가, 철수-에게-를, 철수-에게-도, 철수-에게-는
 나. 철수-하고-가, 철수-하고-를, 철수-하고-도, 철수-하고-는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 지적에 감사를 표한다. 그의 지적은 논리적 의미에 기준을 두면 正文의 폭이 커질 것이고, 의미 효과에 기준을 두면 비문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다른 학자들의 문법성 판단 표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 *?, ?, ??’ 등으로 매겨 놓은 문법성 판단은 익명의 심사자가 지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부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아니 아주머니, 미성년자에게도 담배를 파나요?’라는 발화체에서 {를}이 빠지면, 논리적 의미면에서는 정문이라도 의미효과 면에서는 이상한 문장이 될 것이고, 익명의 심사자가 정문으로 봐주기 어렵다고 하며 제시한 “내가 이 논문이 심사해 보니 신기를 어렵다”라는 문장에서는 논리적 의미로 보서는 정문으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논리적 의미를 파괴하지 않고, 의미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이 심사해 보면, 신기를 어렵다는 이유를 금방 납득할 수 있을 걸”로 쓰일 수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발화체를 정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논의 과정에서 선명히 부각되지 못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다. 독자들의 세심한 읽기를 바란다.

다음 예는 동사의 활용형이나 부사어 뒤에 {가, 를, 도, 는}이 평행하게 출현하는 것을 보여 준다.

- (5) ㄱ. 나뭇잎이 떨어지지^가 않는다구?
 ㄴ. 내가 가지를 말렸^를잖아?
 ㄷ. 너 장가가^도 해 줄께.
 ㄹ. 유학을 떠나^는게는 되었는데.
- (6) ㄱ. 어 기차가 빠^리가 안 움직인다!
 ㄴ. 도대체 왜 빠^리를 안 뛰는 거야?
 ㄷ. 흥, 그^런다고 빠^리도 가^겠다!
 ㄹ. 빠^리는 가서 무^엇하^리!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격조사 계열에는 영형태 { Φ }도 포함되므로 다음의 (7ㄱ)과 같은 연쇄형은 (7ㄴ)의 구조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될 때, 한정사 부류 {가, 를, 도, 는}의 의미기능이 평행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명사 뒤에 붙는 {가, 를}을 격조사로, 그 밖의 {가, 를}을 보조사로 나누어 보려던 동형어 처리방안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된다.

- (7) ㄱ. 철수가 갔어. 철수를 봤어. 철수도 보내. 철수는 자
 ㄴ. [철수- Φ_1 -가], [철수- Φ_1 -를], [철수- Φ_1 -도], [철수- Φ_1 -는]

또한 다음과 같은 언어 현상들은 {가}와 {를}의 본질이 격조사로서의 기능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혹자는 이러한 예문들은 단지 발화상의 실수나 문법적 오류의 문제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의 실제 발화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그런 현상이 숨기고 있는 깊은 의미나 그런 현상의 동인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러한 자료를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가}와 {를}이 격조사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서만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이런 현상이 {가}와 {를}을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로 보는 입장에서는 원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¹³⁾

- (8) ㄱ. 무슨 프로를 보니까, 한강다리에서 짜장면 주문했을 때,(...) 정말 배달이 오더라구.
 ㄴ. 총리서리 처리문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ㄷ. 레간자가 소음도 적고, 기름이 덜 먹는대요.
 ㄹ. 열과 정성이 다하여서 지역구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ㅁ. 어, 칼이 어디다 두었지?
 ㅂ. 너무 많으니까 대사를 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ㅅ. 모든 '가'결합 성분을 주어라고 보는 일에 쉽게 동의하기를 어려운 것이다.
 ㅇ. 저는 그렇게 미술에 재미를 들려있어요.
 ㅈ. 빨기에는 할아버지 선수들이 많아요. 서른을 넘는 선수들이 넷이나 됩니다.
 ㅊ. 별점이 몇점 이상이 되면, 즉각 월급을 깎어요.

이러한 작업 절차를 거쳐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서 분포적으로 명사구 확장의 마지막 자리에 실현될 수 있는 형태는 {가}, {를}, {는}, {도} 네 개뿐이고, 이러한 요소들은 동일 부류를 이룬다. 이 중에서 {가}와 {를}은 분포 면에서

13) 여기서 제시한 발화체는 필자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된 것을 독채하거나 현장에서 받아적은 것, 그리고 자료에서 인용한 것 또는 그 일부들이다. 발화 상황에 대한 설명은 지면의 제약으로 생략한다. (ㄱ) 언어학박사 김선철과의 대화 중에서, (ㄴ) MBC 뉴스테크 정치기자 보도에서, (ㄷ) 택시기사와의 대화에서, (ㄹ) 정치인 조순氏의 보컬 선거 당선 소감에서, (ㅁ) 필자의 부인 한경숙이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ㅂ) 서세원 쇼에서 탈랜트 김원희가 하던 대화에서, (ㅅ) 국어학관련 논문 선우용(1994:27))에서, (ㅇ) 대중가수 조영남의 인터뷰에서, (ㅈ) 축구해설가 신문선의 월드컵 중계방송 중에서, (ㅊ) 박병선 고려대학교 연구원과의 대화에서.

볼 때, 통사적 기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가}와 {를}의 자리 매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가}와 {를}의 분포를 제약하는 기제는 따로 규명되어야 할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본다.

2.3.2 양태적 의미

조사 {가}나 {를}을 격조사가 아닌 담화적 기능 표지, 즉 한정사(=관사)로 보려는 시도의 두 번째 근거는 그들이 보여주는 양태적 의미, 다른 말로 화자의 정감적(affectif) 의미에서 찾아진다. {가}, {를}이 없이 쓰이는 현상을 ‘격조사 생략’으로 많이들 다루어 왔지만, {가}, {를}, {도}, {는}이 화자의 정감적 의미가 배어나오는 발화체에서 생략되기 어렵다는 것은 이들의 기능이 담화적 표지인 인구어의 관사의 기능에 대응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정사(=관사)는 명사(=대상)를 바라보는 카메라렌즈에 비유된다.¹⁴⁾ 다음 대화의 대립쌍에서 (9ㄴ)과 (10ㄴ)의 조사 {가}와 {를}을 생략하고 발화하면, 논리적 의미에 손상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온전한 발화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9) ㄱ. 너 철수 이겼니? - 예.

ㄴ. 네가 철수를 이긴다고? 하하하. - 이게 날 뭘로 보는 거야.

(10) ㄱ. 누구 하나님 본 사람 오른손 들어봐요? - 저요, 저요.

ㄴ. 누가 용의 눈물을 보았다 하는가? - 다 헛소문인줄 아뢰오.

2.3.3 한국어 한정사와 인구어 관사의 대응성

Guillaume(1919)에 따르면, 관사의 문제는 잠재명사(nom de puissance)와 결과명사(nom d'effet)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이

14) 목정수(1998:66)의 그림을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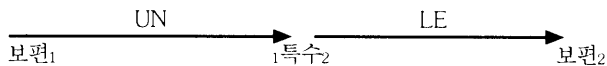
를 느끼게 되는 언어주체인 인간의 문제(problème humain)이고, 관사는 그에 대한 해결의 징후이라고 한다. 일단 다음 예를 보자.

- (11) ㄱ. Un homme est mortel.
 ㄴ. Un homme entra, qui avait l'air hagard.
 ㄷ. L'homme était entré et s'était assis.
 ㄹ. L'homme possède l'intelligence, l'animal l'instinct.

여기서 언어 주체가 느끼는 잠재명사 «homme»와 예문 (11ㄱ, ㄴ, ㄷ, ㄹ)의 결과명사 <un homme>, <l'homme>의 차이를 정신·심리역학론자들은 외연범위(extensité)의 차이라 한다. 여기서 외연범위란 명사의 개념이 담화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으로서, 명사의 형식적 토대를 가리킨다. 따라서 질료적 외연(extension matérielle)으로서의 논리의미적 외연과 구분되는 형식적 외연(extension formelle)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관사는 결과명사 외연의 적용영역을 한정하는 형식적 한정사(déterminant formel)로서, 그리고 명사의 이해형식(forme d'entendement)을 한정하는 담화적 기능 표지로 정의된다.

이렇게 관사를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들의 의미를 체계내에서의 대립(opposition)뿐만 아니라 그들간의 위치(position)를 고려하여 구축한 관사의 심리체계는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순서지어진 대립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관사의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에 제시하는 근원적 이원장력체(tenseur binaire radical)의 도식이다.

(I) 불어의 관사체계:



(여기서 보편(universel), 특수(singulier)는 인간사고의 이중운동이 이루어지는 극한을 나타내는 메타언어로서, 해당 형태소의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메타언어로 교체될 수 있다.)

이제 위에서 재구성된 관사의 체계로 어떤 언어현상이 설명될 수 있는가를 보이고, 그러한 기제가 한국어의 보조사 {가, 를, 도, 는}의 쓰임을 지배하는 기제와 평행함을 구체적으로 불어-한국어의 대역 예나 실제 발화체를 비교해 봄으로써 논증해 보자.

첫째, 이러한 관사체계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관사의 교체에 따른 미세한 의미차이가 백터의 방향과 포착 위치에 의해 원리적으로 설명되는 장점이 있다. (12ㄱ)의 <un soldat français>는 특수를 지향하는 장력체의 보편 위치(=출발향)에서 포착된 결과명사이고, (12ㄴ)의 <le soldat français>는 보편을 지향하는 장력체의 보편 위치(=도착향)에서 포착된 결과명사이다. 이 두 결과명사의 포착 위치는 동일하지만, 그 지향성이 서로 반대인 데서 그 둘의 미세한 의미차이가 비롯되는 것이다.

- (12) ㄱ. Un soldat français sait résister à la fatigue.
 ㄴ. Le soldat français sait résister à la fatigue.

이에 대한 한국어 대역을 나폴레옹이 한 말의 상황적 의미를 고려해서 구성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Boone et Joly(1996:61~65) 참조).

- (13) ㄱ. 그 정도로, 불란서 병사가 지쳐서야 되겠습니까?
 ㄴ. 원래 불란서 병사는 (말입니다), 피곤이 뭔지 모릅니다.

둘째로, 텍스트 1:의 전개과정이 관사의 정신·심리역학 체계의 순서—부정관사→정관사—로 원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 (14) ㄱ. Il était une fois **un** prince très malheureux :
le prince aimait une belle princesse qui ne l'aimait pas.
 ㄴ. 옛날에 왕자님**이** 있었어요. 근대 (그) 왕자님은 예쁜 공주님을
 사랑했대요. 비록 그 공주님한테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요.

마지막으로 불어의 비인칭 구문에서 외치 명사구의 한정사의 제약이 보여주는 한정성 효과를 한국어의 조사 제약과 비교해 보자.

- (15) ㄱ. Il est arrivé {une, *la} voiture.
 ㄴ. Il est arrivé {des, *les} invités.
 ㄷ. Il monte {beaucoup de, *le} monde à cette station.
- (16) ㄱ. 어 차{가, *는} 도착했네.
 ㄴ. 손님들{이, *은} 도착했구나.
 ㄷ. 많은 사람들{이, *은} 이 역에서 타지.

존재 구문에서의 한정성 효과도 불어와 한국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 (17ㄱ)과 (17ㄴ), (18ㄱ)과 (18ㄴ)에 매겨진 문법성은 말차례의 순서에 따른 제약을 고려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17) ㄱ. (Il) y a {un, *le} livre sur la table.
 ㄴ. {Le, *un} livre est le mien.
- (18) ㄱ. 어, 식탁에 칼 한자루{가, *는} 놓여 있네요.
 ㄴ. (그) 칼{은, *이} 영희 거래요.

2.3.4 종합

한국어에는 관사(article)의 범주가 없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의 꼭지점이었다. 그러나 관사를 어떤 범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러한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인구의 관사를 명사의 외연범위를 정해주는 형식적 한정사로 정의하고,

그것의 담화 기능에 주목하고, 바로 그러한 시각에서 관사의 기능이 한국어에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가를 따져 보고, 그 기능 요소들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어의 助詞중에서 일부—{가, 를, 도, 는}—는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는 폐쇄적 부류로서, 붙어의 관사 기능에 대응되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2.3.5 {만}의 문법적 지위

이제는 위에서 제시한 결과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기존의 보조사 계열에 속해 있던 존재들의 위상을 검토해 보겠다. 먼저 유의할 점은 전통적으로 보조사 계열에 함께 분류되었던 {는}, {도}, {만}, {까지}, {조차}, {마저} 등에서 {도}, {는}은 그 나머지와 분리되어 다른 지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근거를 {만}을 중심으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우선 {만}의 행태는 자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양화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의미적으로 쌍대(dual)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던 특수조사 {만}과 {도}가 명사구의 확장구조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다르다는 것은 분포적으로 드러난다. {만}과 {도}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전자는 양화사적인 속성이 강한 명사로, 후자와 같은 한정사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 (19) 철수만이, *철수가만, 철수에게만, 철수에게만은, 철수만을, 철수만의
 (20) *철수도가, 철수가도, 철수에게도, *철수에게도는, *철수도를, *철수도의

{만}이나 {까지}는 보통은 문법관계가 표시된 명사구(N')에 부가(adjoin)되지만, 명사자체(N)에 붙을 수도 있다.

- (21) ㄱ. 필요, 오신것만으로도 고맙지유.

- 나. 칼만으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다.
- 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느님 말씀으로.
- 르. 서울에까지만 가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소.

이러한 양화사적 속성을 보이는 것들은 명사(N)나 명사구(N')에 첨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마치 양화사의 유동(floating) 현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동의 위치가 대개는 문법 관계 표지 바로 뒤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범위가 마지막 자리인 한정사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정사 자리에 고정되어 나타나는 형태소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delimiter’에 속하는 요소로 기술됨은 바람직하지 않다.¹⁵⁾

더 나아가 국어학계에서 {만}을 그의 분포 양상에 따라 보조사나 형식명사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우리는 분포라는 기준의 문제와 통사적 기준을 다시 생각하여 {만}을 명사적 성격을 띠는 질화사(qualifieur)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 예를 보자.

- (22) ㄱ. 너는 밥만 먹고 살 수 있냐?
 나. 철수가 한 밥은 먹을 만하냐?
 디. 장비는 덩치가 짐체만했다.

먼저 (22ㄱ)과 (22나)은 {만}의 분포가 달라진다고—전자는 명사 뒤에, 후자는 관형절 뒤에 온다고 함—하여 각각 ‘보조사’와 ‘의존/형

15) {까지}도 명사적 성격을 띠고 있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중세국어의 명사 {ㅅ장}과 형태적,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 둘째, 현대국어에 ‘힘껏’, ‘마음껏’, ‘일껏’, ‘한껏’, ‘기껏’, ‘여태껏’, ‘이때껏’, ‘해껏(이상 역순사전에서 추출한 목록) 외에 ‘정성껏’, ‘양껏’ 등이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때 전통문법에서 보통은 ‘접미사’로 처리되고 있지만, 어휘성이 강하고 생산력이 높다는 것 자체가 그것의 명사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 명사'로 분류된다. 그리고 분포가 다른 만큼 의미도 '단독'의 {만}과 '정도'의 {만}으로 같다고 한다. 그렇게 기술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22c)의 경우에 {만}이 '집채'라는 명사 뒤에 오고 동사 '하다' 앞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 {만}은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이다. 보조사로 보자니 '단독'의 의미하고 상충되고, 의존명사로 보자니 의존명사가 명사 뒤에 어떻게 올 수 있는가 하는 선행 이론의 틀과 맞지 않는다. 어느 쪽으로나 모순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제3의 요소로 규정할 수도 있다. 왜? 분포가 다르다고 하면 되므로. 즉 명사 뒤에 놓이고 '하다' 앞에서만 분포가 제약되므로 이는 앞의 두 경우하고는 다른 {만}이라고 보면 그뿐이다. 결국 {만₁}, {만₂}, {만₃}을 설정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로 남게 되는데, 이런 결과는 분포라는 개념을 부분적으로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¹⁶⁾

우리는 이러한 문법태도는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객관적인 분포의 기준으로 (22ㄱ, ㄴ, ㄷ)의 {만}의 정체성을 따져 보면, {만}은 결국 동일한 분포를 지닌다고 말할 수

16) 김진형(1995:30)은 {만}의 용법을 다음과 같이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 (1) ㄱ. 영수는 민희만 좋아한다.: '단독'의 {만}
- ㄴ. 요즘 팔기가 먹을 만하다.: '정도'의 {만}
- ㄷ. 아름이는 키가 다운이만 하다.: '정도'의 {만}

위의 예에서 일반적으로 '단독'의 {만}과 '정도'의 {만}이 다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전자는 보조사로, 후자는 의존명사로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결국 의미적으로 추상화된 요소에 대하여 '-ㄴ, -ㄷ' 같은 관형사형어미 아래 나타난 것은 의존명사로 보고 체언 뒤에 바로 결합한 것은 보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보다는 동일한 모습의 형식이 분포는 다소 다르지만 여전히 같은 의미적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의존명사라는 단일한 범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다"(김진형(1995:31)에서 인용).

있기 때문이다. 분포란 어떤 주어진 요소 X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의 총화이다. 즉 {만}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총망라해 보면, 그 자리는 명사의 지위를 가진 요소만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므로 {만}은 범주적으로 동일한 단위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근거를 정리해보자.

첫째, 한국어에서 명사는 수식성분 뒤에 피수식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수식 성분 자리에는 전통적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면, 관형사, 관형형(절) 등이 올 수 있다.

(23) 가. {이, 그, 저} **학생**이 공부 잘 하지.

나. {이, 그, 저} **만**이 가능한가?

(24) 가. 이밥 먹는 **놈** 나한테 죽어, 알았어!

나. 그건 아니 한 **만** 못해요.

둘째, ‘하다’와 결합하는 다른 의존명사들과 {만}은 평행한 관계를 보여준다.

(25) 가. 철수는 그 여자 만난 듯(도) 해.

나. 철수는 날 못 본 **척**(도) 했지.

다. 철수는 공부를 할 **만**(도) 한데.

셋째, 한국어에서 ‘명사+명사’의 통사적 구성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어지므로 명사 뒤에 분포하는 {만}을 명사로 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26) 가. 유치원-{학생, 선생, 문지기...}-{가, 를, 도, 는}

나. 유치원-{만, 까지}-{가, 를, 도, 는}

(27) 가. 시골-{놈, 분, 사람, 출신, 농부...}-{가, 를, 도, 는}

나. 시골-{만, 까지}-{가, 를, 도, 는}

따라서 {만}이 보이는 분포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명사의 대부

류에 속한 요소라는 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만}이 ‘단독’이나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요소가 아니라, 그러한 의미는 {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요소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의미효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질과 부수적 효과는 어디까지나 구별되어야 한다.

3. 격조사 교체 현상에 대한 기존 논의들과 그 비판

3.1 이중 주어 문제

3.1.1 기존 논의 개관

한국어 문법에서 難題 중의 하나가 소위 ‘이중주어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특이한 구문의 생성과 해석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입장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우선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의 기본구조를 ‘주부+술부’로 파악하는 전통적 입장에서 형상성(configurationality)을 중시하는 생성문법의 논의에 이르기까지를 한 계열로 묶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 같은 경우에 문장 구조는 ‘주제(topic)-평언(comment)’ 구조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담화·기능주의적 입장으로 묶어 볼 수 있다.¹⁷⁾ 후자의 입장에서 한국어는 주제부각형 언어이고 인구어는 주어부각형 언어라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또한 이중주어구문의 문장 패턴을 세분화하여, 술어의 특성에 따라

17) 이향천(1991), 임동훈(1996) 등을 참조할 것.

첫 번째 위치에 나타나는 명사구와 두 번째 위치에 나타나는 명사구의 관계 유형을 정립하고자 했던 시도가 있었고,¹⁸⁾ 관계화, 존칭표지 {시}와의 호응관계 등의 통사적 조작을 통해 이중주어구문의 진정한 주어가 무엇인가를 논하는 작업도 많이 제시되었다.¹⁹⁾ 이러한 문제는 또한 한국어에 ‘서술절’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쟁점화된 바 있다.²⁰⁾

3.1.2 생성문법 계열의 논의

먼저 다음과 같은 소위 이중주어구문의 한 유형을 취해서 이에 대한 생성문법 계열의 논의가 공유하고 있는 핵심만을 짚어보자.

(1) 대구가 사과가 맛있다.

이러한 구문을 접했을 때, 대개 생성문법론자들은 이 예문이 문장의 차원을 넘어서는 담화차원에 걸치는 문제라고 해서 주제화 성분이 이동할 수 있는 Spec자리를 설정한다.²¹⁾ 왜 이론 내적으로 스펙 자리

18) 양인석(1972)와 임동훈(1997) 참조. 양인석(1972)은 소위 이중주어구문의 제 1명사구와 제2명사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하위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 ㄱ. whole/part 코끼리가 코가 길다.
- ㄴ. class/member 시계가 엘진이 비싸다.
- ㄷ. type/token 해가 뜨는 해가 멋있다.
- ㄹ. total/quant 말이 두 마리가 달린다.
- ㅁ. affected/affector 내가 아버지가 아프습니다.

19) 연재훈(1994:60)은 기능-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에 이중주어구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장에 진정한 주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주격(double-nominative) 구문’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20) 서술절을 인정하는 입장으로는 임동훈(1996, 97) 등을 들 수 있고, 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는 남기심(1986), 임흥빈(1997)을 참조할 수 있다.

가 설정되어야만 하는가? 우리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원리와 매개변인 중심적인 GB이론에서 하부 원리의 하나인 '격이론(case theory)'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어는 외부 논항으로 시제(구)에 의해 주격을 할당받고, 목적어는 술어의 내부 논항으로 형상성에 의해 술어에 직접 관할되는 논항에 목적격이 할당된다.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맛있다'라는 술어는 논항을 하나 요구하는 한자리 술어이다.²²⁾ 따라서 그 술어의 논항은 '사과'이므로 '사과'에는 술어에 의해—정확히는 동사의 INFL에 의해—주격이 할당되고 소위 구조격(structural case)에 주격조사 {가}가 '할당된 격에 표지를 부과하라'는 규칙에 의해 부착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소위 주격조사를 취하고 있는 '대구가'는 격을 할당받을 수 없으므로 좌초되어 버리고 만다. 그에게 격을 할당해 주는 요소가 없으므로 내재격(inherent case)을 갖는 위치를 만들어서 그리로 이동시키지 않을 수 없다.²³⁾ 그렇지 않으면 격여과에 걸려 非文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가'는 문장의 경계를 넘어서 격을 할당받을 수 있는 자리—스펙자리—를 설정하여 그 위치로 이동된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연히 '대구가'가 문장을 뛰어넘는 담화차원의 성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심층구조에서는 '[대구 사과가]'가 한 성분으로 주격을 할당받고 나서, 그 성분이 '[대구의] [사과가]'로 쪼개지고, 그 후에 '[대구의]' 성분이 주제화되어 '[대구가]'가 된 것으로 분석하는 시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²⁴⁾

21) 엑스바 모형에 의지해서 설명을 시도하는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론 내적으로 그 위치가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맛있다'라는 술어 자체도 '맛+있다'의 통사적 구성으로 파악될 여지가 다분히 있으나, 여기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고, 하나의 술어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23) 소위 구조격, 내재격은 이론내적 개념이지, 일반적 개념이 아님에 유념해야 한다.

3.1.3 본고의 논의

그러나 본고의 입장을 따르면 위 문장은 문장차원과 담화차원으로 나뉘어지는 문제가 아님은 물론, 기본적인 문장구조로도 풀릴 수 있다고 본다. 위의 예문은 다음과 같은 질서 속에서 생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2) 대구- Φ_1 -가 사과- Φ_1 -가 맛있다.

우리는 위의 문장 (2)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계열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ㄱ. 대구- Φ_1 - Φ_2 , 사과- Φ_1 -는 참 맛있어.
 ㄴ. ²⁴대구- Φ_1 -를 사과- Φ_1 -가 맛있다고?
 ㄷ. 대구- Φ_1 -도 사과- Φ_1 - Φ_2 맛있던데.
 ㄹ. 대구- Φ_1 -는 사과- Φ_1 -도 맛있다니까.

이러한 구조는 유표적으로 실현된 다음과 같은 구조에 대응된다.

- (4) ㄱ. 대구-²⁵에(서)-(Φ_2 , 가, ²⁶를, 도, 는) 사과- Φ_1 -{가, ²⁷를, 도, 는} 맛있다나.
 ㄴ. 대구-의-(Φ_2 , *가, *를, *도, *는) 사과- Φ_1 -{가, ²⁸를, 도, 는} 맛있다니!²⁵⁾

다음 예도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예를 반복하여 검토하는 것은 {가}라는 형태소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제반 논의들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

24)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논의에 대해 가타부타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생성 이론 내적으로 이런 식의 논의를 전혀 배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런 류의 논의로는 임흥빈(1972, 1996)을 참조할 것.

25) 소유격조사 {의} 다음에 보이는 한정사 {가, 를, 도, 는}의 결합제약에 대해서는 목정수(1998ㄴ)의 각주 43)을 참조할 것.

해서다. 다음 세 문장을 비교해 보자.

- (5) 가. 가을이 사과가 싸야.
 나. 가을도 사과가 싸다고?
 다. 가을 사과가 싸지 무슨 소리야.

이중주어구문 (5가)을 중심으로 해서 표면적으로 보면, (5가)에서의 소위 주격조사 {가}가 (5나)에서는 {도}와 교체되었고 (5다)에서는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았는데, (5나, 다)도 이중주어구문이라 할 수 있는가? (5다)에서 ‘가을’과 ‘사과’는 소유관계 이외에도 처소와 대상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가을의 사과’가 쌀 수도 있고, ‘가을에 나오는 사과’가 쌀 수도 있고, ‘가을에 파는 사과’가 쌀 수도 있다. 즉 영형태소 { Φ }에 의해 실현된 ‘가을’은 다양한 통사적 기능으로 해석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 만큼 ‘가을 사과’라는 연쇄는 합성어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²⁶⁾ 합성어의 해석은 구성요소들의 합이 아니라 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6) 문장은 (7가)과 같은 구조로 분석된다. 또 (7가)의 구조는 (7나-다)의 구조와 평행관계를 이룬다.

- (6) 사과는 여름이 싸고, 겨울은 비싸다.
 (7) 가. 사과- Φ_1 -는 여름- Φ_1 -이 싸고, 겨울- Φ_1 -은 비싸다.
 나. 사과- Φ_1 -는 여름-에-가 싸고, 겨울- Φ_1 -은 비싸다.
 다. 사과- Φ_1 -도 여름- Φ_1 -이 싸고, 겨울-에-는 비싸다.
 라. 사과- Φ_1 - Φ_2 여름- Φ_1 -이 싸고, 겨울- Φ_1 -은 비싸다.

다음 예문의 명사구들은 ‘전체/구성’ 유형의 이중주어구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생성문법 계열의 논의와 비교해 본다.

26) Martinet의 집합(synthème)과 통합(syntagme) 구분을 참조할 것.

- (8) ㄱ. 코끼리가 코가 길다.
 ㄴ. 영희는 다리가 예쁘다.

우리가 2장에서 설정한 조사체계에 입각해서 보면, 위 문장에서 ‘코’는 ‘길다’라는 서술어와의 관계에서 통사적으로 주어 기능을 하는데, 그 주어라는 통사적 기능을 표시하는 것은 {가}라는 형태소가 아니고, 바로 영형태소 {Φ}이다. 그리고, ‘코끼리’는 ‘코’와의 관련에서 소유어의 통사적 기능을 획득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문법관계는 {Φ} 또는 {의}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 {Φ}에 의해 실현된 통사적 기능은 유표적인 문법관계표지에 의해 실현된 통사적 기능에 대응되지만,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 코가’와 ‘코끼리의 코가’는 평행한 해석을 낳을 수도 있지만, 전자가 ‘[코끼리 코]’라는 의미 덩어리로 중간 포즈없이 일종의 합성어 개념에 근접하여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후자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과 후자의 ‘코끼리의’는 반드시 후행 명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코끼리의 코’ 전체가 하나의 논항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 이처럼 {의}라는 문법표지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한정사 {가, 를, 도, 는}이 연쇄될 수 없는 것이다.²⁷⁾

이제 소위 처소어로 해석되는 논항을 포함한 이중주어구문을 살펴보자. 아래 문장 (9)과 (10)에서 술어 ‘있다’나 ‘많다’의 주어는 ‘책’이 될 것이고, 나머지 논항의 의미역은 처소어(location)로 해석될 것이다. 이 문장들의 내적 구조는 각각 (11ㄱ)과 (12ㄱ) 같은 구조가 된다. 그리고 (11ㄴ-ㄷ)과 (12ㄴ-ㄷ)은 그 변이형들이다.

- (9) 나는 책이 좀 있죠.
 (10) 철수는 돈이 많아요.

27) 한국어나 일본어의 전통문법에서 {의}나 {의}를 연결조사로 보려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 (11) 가. 나- Φ_1 -는 책- Φ_1 -이 좀 있죠.
 나. 나- Φ_1 - Φ_2 책- Φ_1 -은 좀 있어요.
 다. 나-에게-는 책- Φ_1 -도 좀 있다 할 수 있죠.
 라. 내- Φ_1 -가 책- Φ_1 -이 있다고라고라.
- (12) 가. 철수- Φ_1 -는 돈- Φ_1 -이 많아요.
 나. ²철수-에게-를 돈- Φ_1 -이 많을까?
 다. 철수- Φ_1 - Φ_2 돈- Φ_1 -도 많지요.
 라. 철수- Φ_1 -도 돈- Φ_1 -은 많다고요.

다음은 심리동사 구문으로 알려진 예들이다.

- (13) 가. 나는 호랑이가 무서워.
 나. 너는 할머니가 그림니?
 다. 우리 아들은 음악이 싫대.

흔히 심리동사 구문의 이중주어성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 술어의 경험주 논항이 여격 구문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논의가 있었다(김세중(1994), 연재훈(1995), 남지순(1996), 유현경(1996) 참조). 그러나 우리는 인칭과 제약 관계를 보이는 주관 심리동사(verbe subjectif psychique)의 경우에 경험주 논항으로 해석되는 논항은 여격의 표지로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의 입장은 심리술어의 경우는 두자리 논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술어의 제1논항은 주어로서 경험주(experiencer)로 해석되고, 대상(theme)으로 해석되는 제2논항은 목적어에 해당되는 통사적 기능을 획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두자리 논항을 요구하는 타동성의 객관 행위동사(verbe descriptif d'action)와 그 구조가 평행하게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어자리와 목적어자리에 실현되는 논항에 부가되는 한정사의 제약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다. 객관 행위동사의 목적어인 제2논항은 동사의 타동성 때문에 주체지향적 성격의 한정사 {가}보다는 객체지향적인 한

정사 {를}을 선호하는 반면에, 주관 심리동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제2논항은 그 동사의 주관성 때문에 주체지향적 성격의 한정사 {가}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²⁸⁾

- (14) 가. 나- Φ_1 -는 호랑이- Φ_1 -가 무섭다.
 나. *나-에게-는 호랑이- Φ_1 -가 무섭다.
 다. 철수- Φ_1 -도 호랑이- Φ_1 -는 무섭나 봐.
 르. ?철수- Φ_1 -가 호랑이- Φ_1 -를 무섭다나 어떻다나.
- (15) 가. 나- Φ_1 -는 호랑이- Φ_1 -를 죽였다.
 나. *나-에게-는 호랑이- Φ_1 -를 죽였다.
 다. 철수- Φ_1 -는 호랑이- Φ_1 -를 죽였나 봐.
 르. ?철수- Φ_1 -를 호랑이- Φ_1 -도 죽였다고?

3.1.4 정리

이상에서 소위 이중주어구문의 여러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논의에서 소유격조사 {의}, 처격조사 {에}, 여격조사 {에게}가 주격조사 {가}와 교체되어 소위 이중주어구문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는 논의나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출현하는 논항에 어떻게 주격을 배당하는가의 기제를 밝히려는 생성문법 계열의 논의는 그 나름의 이론 안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를 주격조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논의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명사구 확장구조에서 {의, 에, 에게, 로...} 부류는 {가, 를, 도, 는} 부류와 교체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중주어와 관련된 논의는 지금까지의 논의의 틀을 벗어나서 새롭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주어구문’이 한국어의 독특한 현상이 아닐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의}, {에(서)}, {에게} 등의 격조사는 영형태의 문법관계 표지 $\{\Phi_1\}$ 과 선택관계에 있는 것이다.

28) 본 논문의 각주 37)을 참조할 것.

3.2 이중목적어 문제

소위 이중목적어구문도 이중주어구문과 비슷한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므로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다음 예를 중심으로 우리의 입장만을 제시해 보겠다.

- (1) ㄱ. 철수는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ㄴ. 철수는 영희를 책을 주었다.
- (2) ㄱ. 철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ㄴ. 철수는 영희를 손을 잡았다.

위의 예 (1ㄱ, ㄴ)은 전형적으로 서술어 ‘주다’가 세 자리 서술어임을 보여주는 예로 많이 거론되는 예이고, (2ㄱ, ㄴ)은 신체부위명사 구문의 특성으로 기술되어 온 예이다.

전통문법이나 생성문법 계열의 논의에서는 ‘주다’라는 서술어가 각각의 논항에 의미역과 격을 할당할 수 있고, 차례로 주격, 여격, 대격이 {가}, {에게}, {를}에 의해 실현된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각 논항이 擔持하는 통사적 기능인 주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는 영형태의 격조사 { ϕ_i }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가 있음은 다음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 ㄱ. 철수 영어책도 영희 주었나? 한번 알아봐야지. (주어)
- ㄴ. 철수가 영희에게 영어책 준 적이 있나? (직접목적어)
- ㄷ. 철수는 영어책을 영희 주었다는군. (간접목적어)

예문 (2)에서 소유어란 통사적 기능의 담지자인 ‘영희’도 유표적인 격표지 없이 실현될 수 있다.

- (4) ㄱ. 철수는 영희의 손도 잡아 주었지.
- ㄴ. 철수는 영희 손 잡고는 어쩔 줄 몰라했다.
- ㄷ. 철수가 영희는 손을 잡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래.

따라서 ‘이중목적어구문’으로 취급되는 (1ㄴ)의 예문은 {에게}가 {를}로 교체되어 소위 대격 중출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 Φ_1 }에 의해 실현된 분석격의 명사구에 {를}이라는 한정사가 교착된 형태의 문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1ㄴ)은 다음의 여러 변이체 가운데 하나—(5ㄴ)—일 뿐이다.

- (5) ㄱ. 철수는 영화-에게- Φ_2 책- Φ_1 -을 주었어.
- ㄴ. 철수는 영화- Φ_1 -를 책- Φ_1 -을 주었어.
- ㄷ. 철수는 영화-에게-는 책- Φ_1 -도 주었어.
- ㄹ. 철수는 영화- Φ_1 -도 책- Φ_1 - Φ_2 주었어.
- 등등.

우순조(1994:17)에서는 다중주어구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현상이 있다면 다중목적어구문이나 그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을 법한데 전혀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했고 나아가서 이중주어구문과 이중목적어구문이 있음에도 이중처격 구문이나 이중여격 구문에 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나 {가}나 {를}을 문법관계 표지로 보지 않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의 복수 출현은 주어의 복수성을 의미하지 않고, {를}의 복수 출현도 마찬가지로 목적어의 중출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처격어나 여격어가 문법관계 표지에 의해 실현될 때, 그 문법관계 표지들은 계열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에 의해 실현된 성분이 서로 통합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어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중처격/여격 구문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 관한 논의가 많지 않았던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게 된다.²⁹⁾

29) 우순조(1994)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즉, “주격과 목적격, 그리고 그외의 자격들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관계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 (6) ㄱ. *²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놀자.
 ㄴ. ²학교의 운동장에서 놀자.
 ㄷ. 학교 운동장에서 놀자.
 ㄹ. 학교는 운동장에서만 놀아야 돼.

우순조(1994)에서 이른바 격조사 교체 현상을 ‘승격(promotion)’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예 중에서 다음과 같은 예문도 필자가 보기에 다소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이유 그대로이다.³⁰⁾

- (7) ㄱ. *²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뺨에 입을 맞추셨다.
 ㄴ. ²어머니께서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셨다.
 ㄷ. 어머니께서 아들 뺨에 입을 맞추셨다.
 (8) ㄱ. *²스턴트맨이 육삼빌딩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ㄴ. ²스턴트맨이 육삼빌딩의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ㄷ. 스텐트맨이 육삼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9) ^{??}우리 아버지는 서울에서 성북동에서 삽니다.
 (10) *²나는 하늘에서 구름에서 내려온 선녀를 보았다.

3.3 목적어 상승 구문 對 주어 하강 구문

다음과 같은 구문에서 조사 {가}와 {를}의 교체 현상은 격할당의

되기에 충분하기도 하거니와 현상을 보는 이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킨다”에 대한 설명을 본고에서 설정한 한국어 명사구 확장구조의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한 문장 내에서 한 명사구는 한 기능에 해당한다는 그의 ‘기능 안정성 가설’이 오히려 본고의 틀로 더 설득력 있게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 ‘사격’이란 것은 대개 ‘후치사’—여기서는 문법관계 표지—로 실현되는 통사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이 유표적인 후치사류를 두 번 以上 선택한다는 것은 언어의 경제성에도 어긋나고 언어의 구조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30) 해당 예문의 문법성 판단 표시는 필자 자신에 의한 것이며, 우순조(1994)에서 제시된 것과 차이가 짐은 물론이다.

문제를 야기하여, 특히 ‘격이론’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의 관심대상이 되었다.

- (1) ㄱ. 나는 영화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ㄴ. 나는 영화를 예쁘다고 생각한다.

GB의 이론에서는 이러한 구문에 대해서 ‘ECM(예외적 격표지) 구문’으로 다루어 어떻게 격을 제대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³¹⁾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구문과 변이관계에 놓인 다음과 같은 문장들은 어떤 구조에 대응된다고 보아야 하는가이다. (1ㄱ)에서 도출할 것인가? (1ㄴ)에서 도출할 것인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있어도 그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ㄱ)은 {가}가 생략된 것인가 {를}이 생략된 것인가, {도}나 {는}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가? 이에 대한 답은 여러개 중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 (2) ㄱ. 나는 영화 예쁘다고 생각해, 넌?
 ㄴ. 나는 영화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ㄷ. 나는 영화도 예쁘다고 생각해요.

위의 구조를 생성해 내는 기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 번째 입장은 (2ㄴ, ㄷ)은 ‘[영화가 예쁘다]’의 내포절 구조에서 주어가 상위절로 주제화되어 이동되어가서 ‘생각하다’의 목적어 자리에 착지하여 ‘영화를’로 상승된 뒤에 주제화에 의해 한 단계 상승한 ‘영회는/영회

31) 임의적이지만 대표적으로 Hong · Hong · Sohn(1996)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 된 것으로 분석하는 입장이다.³²⁾ 이를 전통적으로 '목적어 상승/인상(object raising) 구문'이라 했다. 둘째는 '[영희를] [e 예쁘다고 생각해]' 구조에서 모문의 목적어가 내포문의 주어자리로 하강되어 서술어 '예쁘다'와 결합하고 그 결합체 '[영희가 예쁘다]'가 상위문의 술어 '생각하다'의 보문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는 입장으로 귀착된다. 이러한 입장에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주어 하강 구문'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기저 구조를 '[영희를] [영희가 예쁘다고] 생각하-' 구조로 잡고, 내포절의 주어와 상위절의 목적어가 공지칭적일 경우, 동일명사구 삭제 규칙(equi-NP deletion)을 설정하여, (1ㄱ, ㄴ)을 생성하는 입장이 있다. 물론 어느 명사구를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의 문제가 따른다.³³⁾ 상위절의 목적어를 삭제하면 (1ㄱ)이 되고, 하위절의 주어를 삭제하면 (1ㄴ)이 되지만, 어느 한 입장이 다른 입장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생각하다'라는 술어의 논항구조를 두자리 술어로 보고, 그 하위범주화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3) '생각하다'의 하위범주화들 : [NP[행위주], NP[대상]]

다음 예는 그 실현 예이다.

(4) 나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따라서 위의 하위범주화들에 따르고, 보문소 '-고'가 인용표지임을 중시하여, 위의 (1ㄱ, ㄴ) 기본구조를 다음 (5)와 같이 파악한다. 우리는 {가}와 {를}의 교체를 한정사 교체 현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논항의 이동이나 상승의 개념을 끌어들이 필요가 없게 된다.

32) 여기서 흔적(trace) 이론이나 공범주(empty category) 원리와 관련된 논의는 생략한다.

33) 우순조(1997)를 참조할 것.

(5) 나는 [[영화- Φ_1 -{가, 를} 예쁘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면 당연히 (2ㄱ, ㄴ, ㄷ)도 (5)와 평행한 구조로 파악된다. ‘[영화- Φ_1 -{ Φ_2 , 가, 를, 도, 는} 예쁘다]’라는 내포절은 인용표지(=보문소) ‘-고’에 의해 명사구로 전환되어 ‘생각하다’의 목적어 기능으로 구실하므로 ‘생각하다’의 명사구 논항과 평행하게 해석된다.³⁴⁾

(6) ㄱ. 나는 [_{NP}[영화- Φ_1 -{ Φ_2 , 가, 를, 도, 는} 예쁘다]-고] 생각해.
 ㄴ. 너는 아직도 [_{NP}영화를] 생각하니?

3.4 터프 구문

영어의 터프(tough) 구문과 관련하여 논의된 문장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두 문장간의 대응을 들 수 있다.

- (1) ㄱ. 이 책이 읽기가 어렵다.
 ㄴ. 이 책을 읽기가 어렵다.
- (2) ㄱ. 나는 맥주가 마시고 싶다.
 ㄴ. 나는 맥주를 마시고 싶다.

(1)과 관련된 구문은 생성문법 계열의 논의에서—초기의 터프구문의 생성절차로부터 최근의 최소주의(minimalism) 이론에 입각한 논의에 이르기까지—실로 많은 쟁점을 낳았다. 여기서는 최소주의의 이

34) ‘-고’는 Tesnière의 전환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Tesnière는 전환의 세가지 요소들을 피전환 요소(transférénde), 전환·피전환 연결체(transféré), 전환 요소(translatif)로 나누어 부르고, ‘T’자를 변용해 도식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우리의 예문에서 피전환요소는 ‘[영화{가, 를} 예쁘다]’이고 전환·피전환 연결체는 ‘[[영화{가, 를} 예쁘다]-고]’이고, 전환요소는 바로 ‘-고’이다.

론에 입각한 김선웅(1996)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논의의 성격을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터프구문에서 보이는 격조사 교체 현상에 대해 논항의 ‘전수’와 ‘합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박진호(1994)의 설명력과 아울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3.4.1 주격 목적어 對 목적격 목적어

김선웅(1996)은 Chomsky(1991) 이후의 최소이론에서 제시된 목적어는 목적어 일치소구의 지정어 자리에서 격점검(case checking)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주격 목적어의 격점검은 주어 일치소구의 하위 지정어 자리임을 증명하고자 한 시도이다. 여기서 ‘주격 목적어’는 위의 문장 (1ㄱ, 2ㄱ)에서의 ‘이 책이’와 ‘맥주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통사적으로는 목적어 성분인데, 주격표지 {가}가 붙어 있어 흥미롭다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을 최소이론의 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1) 대주어의 주격은 시제소구의 지정어 자리에서 점검되고, 2) 주격 주어의 주격은 주어 일치소구의 상위 지정어 자리에서 점검되고, 3) 주격 목적어의 주격은 주어 일치소구의 하위 지정어 자리에서 점검되고, 4) 목적격 목적어의 목적격은 경동사구의 상위 지정어 자리에서 점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선웅(1996:260)).

우리는 생성문법의 최근 이론에서도 그 설명방식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결국 기본 자료를 보는 시각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한국어의 {가}는 주격표지이고, {를}은 목적격표지로 보고 있다. 그 때문에 ‘주격 주어’, ‘목적격 주어’, ‘주격 목적어’, ‘목적격 목적어’라는 용어를 문제삼지 않고,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³⁵⁾ 따라서 ‘격할당’이나 ‘격점검’이란 용어로 현상을 설명하는 방

35) ‘주격 목적어’, ‘목적격 주어’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식에 변화와 진보가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이론 내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메타적 시각에서 보면,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의는 {가}와 {를}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격조사라는 선입견에 토대를 두고 정교하게 변화된 이론 틀을 수용하는 선에서만 성립가능한 문제를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김선웅(1996)의 논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논의가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를 비교적인 시각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3.4.2 논항의 전수와 합류

다음 예는 ‘쉽다’, ‘어렵다’, ‘수월하다’, ‘힘들다’ 등의 서술어가 형성하는 ‘터프(tough) 구문’ 논의의 중심을 이루는 예로서 박진호(1994: 65)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 (3) ㄱ. 파리를 잡기가 어렵다.
 ㄴ. 파리가 잡기가 어렵다.

박진호(1994)는 내포문 동사의 목적어 논항이 대격 뿐만 아니라 주격으로도 나타나는 현상을 함수자 핵이 자신의 논항을 다른 함수자 핵에게 전수시키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그의 설명을 보자. (3ㄱ)에서 ‘잡-’은 타동사로서 대격의 보어를 취하므로 ‘파리를’과 ‘잡-’이 성분을 이루고, ‘어렵-’은 한자리 함수자로서 ‘파리를 잡기가’를 논항으로 취한다. 반면, (3ㄴ)에서는 ‘파리가’가 주격이므로 ‘잡-’과 결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잡-’은 피해주(patient) 논항에 대해 대격을 지배하지 주격을 지배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3ㄴ)에서 ‘파리가’는 ‘잡기가 어렵-’과 결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잡기가 어렵-’의 핵은 ‘어렵-’이고, ‘어렵-’은 항상

주격을 지배하므로 ‘파리가’가 주격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그의 논의의 핵심은 ‘잡-’의 피해주 논항이 ‘어렵-’에게 전수 되었다는 점인데, ‘잡-’의 격지배 속성과 ‘어렵-’의 격지배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논항 실현의 변이가 생기게 된다는 점이다. 즉, ‘잡-’의 피해주 논항이 전수를 겪지 않고 ‘잡-’과 결합하면 대격으로 실현되지만 ‘어렵-’에게 전수되면 주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박진호(1994)는 의미적 논항구조가 통사적으로 결합하는 양식을 합류와 전수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 있으나, 문장의 형상성을 보는 시각은 생성문법의 엑스바 이론과 이분지 가설을 따르고 있으면서 핵(head)의 개념으로 범주표시만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박진호(1994:44~45)),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조사 자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박진호(1994)가 제시한 방식도 다음과 같은 문장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소위 격조사 {가}, {를}이 실현되지 않거나, 그 자리에 보조사가 실현된 문장을 살펴보자.

- (4) ㄱ. 파리 잡기가 무척 어려울걸.
 ㄴ. 철수는 파리도 잡기가 어려운가 봐.
 ㄷ. 파리는 잡기가 어렵다? 어디 보자.

위 문장은 어떤 구조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까? 그 도출과정
 에 대한 설명이 문제시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소위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가 처격조사와 중첩된 구문은 논항의 전수와 합류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따져 보기로 한다.

- (5) ㄱ. 학교 가기가 쉽냐?
 ㄴ. 학교에 가기가 쉽다더라.

- ㄷ. 학교가 가기가 쉽다.
- ㄹ. 학교를 가기가 쉽다면, 왜 안 갔겠어?
- ㄴ. 학교에가 가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야.
- ㄴ. 학교에를 가기가 쉽다고 할 수 있을까?

논항 전수의 개념을 받아들여 위 문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내포문의 동사 ‘가-’가 ‘쉽-’에 논항을 전수하기 전에 ‘학교’와 결합하면 ‘학교에 가기가’ 성분이 만들어지고, 논항을 전수받은 함수자 ‘쉽-’은 한자리 술어로 ‘학교에 가기가’를 논항으로 결합한다. 그렇다면, ‘가기가 쉽-’이라는 복합서술어는 ‘학교가’나 ‘학교를’ 또는 ‘학교에가’나 ‘학교에를’과 같은 논항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박진호(1994:67)에서는 ‘우리 차가 빨리 가기가 어렵다’는 문장이 구조적 중의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우리 차가 빨리 가기가 어렵-]’의 성분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우리 차가 [빨리 가기가 어렵-]’의 성분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전자는 논항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고, 후자는 ‘가-’의 논항이 ‘어렵-’에게 전수된 경우이다. 그러나, ‘가-’의 격지배 속성과 ‘어렵-’의 격지배 속성이 같기 때문에 전수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논항이 같은 격으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의 설명을 따르면, 위의 (5ㄴ)의 문장은 논항 전수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학교에 가기가 쉽-’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의 예는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다. 결국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수조사 {가}나 {를}에 의한 주제화 논의를 다시 도입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다.

- (6) ㄱ. 너는 학교가 가기가 어렵니?
- ㄴ. 너는 학교를 가기가 그렇게 어렵니?
- ㄷ. 난 학교에가 가기가 쉽지 않았어.
- ㄹ. 난 학교에를 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우리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학교가’는 ‘학교- Φ_1 -가’로, ‘학교를’은 ‘학교- Φ_1 -를’로 분석되고, ‘학교에가’는 ‘학교-에-가’로, ‘학교에를’은 ‘학교-에-를’로 분석되므로 모두 평행한 문법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술어 ‘가다’와 맺고 있는 논항 ‘학교’의 문법관계, 즉 통사적 기능은 동일하게 $\{\Phi_1\}$ 과 $\{에\}$ 에 의해 실현되고, $\{가\}$ 와 $\{를\}$ 의 조사 교체는 격조사 교체— $\{\Phi_1\} \cap \{에\}$ —와는 거리가 먼 한정사로서의 $\{가\}$ 와 $\{를\}$ 의 교체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정사로서의 $\{가\}$ 와 $\{를\}$ 의 교체에 따른 의미상의 차이는 $\{가\}$ 와 $\{를\}$ 의 대립체계에 의해 ‘학교가’는 주관 심리동사 ‘싶다’와 더 긴밀히 연결되고, ‘학교를’은 객관 행위동사 ‘가다’와 더 긴밀히 연결되는 것 같은 의미효과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학교에가’와 ‘학교에를’의 의미 差異도 이와 평행하게 산출된다.

3.4.3 송석중(1993)과 권재일(1992)

다음으로 위의 (2) 문장에 관한 논의로 돌아가 보자. 이 구문에 대한 송석중(1993:143~144)의 분석도 $\{가\}$ 는 주격조사, $\{를\}$ 은 대격조사라는 점을 버리지 않은 채 그 쓰임새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중의성을 설정하여 주격조사와 대격조사의 교체를 설명하고 있다.

- (7) ㄱ. [[맥주]_{NP} [마시고]_VVP] 싶다
 ㄴ. [맥주]_{NP} [마시고 싶다]_{VP}

그러나 ‘마시고 싶다’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달리 설정되는 두 어휘로 구분될 수 있는가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그를 증명하는 방법도 순환론적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생성문법 계열의 대부분의 논의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가\}$ 와 $\{를\}$ 의 교체를 격이론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꾸며진 이론인데, {가}와 {를}의 본질이 격표지가 아님이 증명되었을 때, 그 이론적 토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국어학의 한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권재일(1992)에서는 터프 구문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장을 가지고 격조사 {가}와 {를}의 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 (8) ㄱ. 나는 너를 무척 보고 싶었다.
 나. 나는 네가 무척 보고 싶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주어는 명사구에 주격조사가 결합하여 실현되고, 전형적인 주격조사는 {가}인데, 주격조사의 기능이 목적격으로도 전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권재일(1992:222)에서 부분적으로 인용). 본고는 이러한 기술은 형태의 존재를 철저히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자연스러움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기술태도나 분석 방식을 계속 견지하면, 다음 예에서 보듯이, 주격이 처격으로 전용되기도 하고, 공동격으로 전용되기도 하는 등등의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문(paraphrase)을 기준으로 형태를 무한하게 의미에 의존하여 분석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형태를 중심으로 하려던 문법기술의 방향을 잃게 되는 셈이다.³⁶⁾

- (9) ㄱ. 왜 오늘따라 학교가 안 가지지?
 나. 너 오늘 학교에 안 갈거야?
 (10) ㄱ. 영화는 철수가 공합이 잘 맞을 걸?
 나. 영화는 철수와/하고 공합이 잘 맞을 것 같지 않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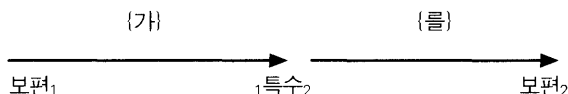
36) 결과적으로 이는 권재일(1992)의 책머리에 제시된 형태론 중심주의, 이론의 일관성과 전체성,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의 조화라는 그의 전반적인 문법관과 기술방식에 부분적으로 상치된다.

이제 우리의 논의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설정하는 ‘맥주 마시고 싶다’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11ㄱ)과 같다. (11ㄴ-ㄷ)은 그 변이형들이다.

- (11) ㄱ. 나는 맥주- Φ_1 - Φ_2 마시고 싶다.
 ㄴ. 난 맥주- Φ_1 -가 마시고 싶어.
 ㄷ. 맥주- Φ_1 -를 마시고 싶다 했을 뿐이야.
 ㄴ. 넌 맥주- Φ_1 -도 마시고 싶냐?
 ㄷ. 맥주- Φ_1 -는 마시고 싶지만, 돈이 없네 그러.

‘맥주가’와 ‘맥주를’은 모두 ‘맥주- Φ_1 -가’와 ‘맥주- Φ_1 -를’로 분석되기 때문에 둘다 뒤의 서술어 ‘마시다’의 목적어에 대응되는 통사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며, 다만 {가}라는 한정사를 통해 투시된 ‘맥주가’는 주체지향적인 속성 때문에 보조동사 연결체인 ‘마시고 싶다’의 주관 심리동사 ‘싶-’에 접근하여 그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를}은 객체지향적 운동체이기 때문에 ‘맥주를’은 주관 심리동사 ‘싶-’에서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며 ‘마시고 싶다’의 타동사 ‘마시-’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다.³⁷⁾

37) 한정사로서의 {가}와 {를}의 대립체계에 대해서는 목정수(1998ㄱ, ㄴ)을 참조할 것. 그 설명들을 간략히 추리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문법적 요소의 의미는 구체적인 의미보다는 운동성(cinétisme)의 개념, 즉 벡터의 대립 체계로 설정하였다. 다음이 {가}와 {를}의 근원적 이원장력 체계이다.



여기서 ‘보편’과 ‘특수’는 메타언어로 {가}와 {를}의 구체적인 의미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편’ 대신에 ‘객체’, ‘청자’, ‘우주’, ‘우주적 시공’, ‘무정’을 대입하고, ‘특수’ 대신에 ‘주체’, ‘화자’, ‘인간’, ‘지금/여기’, ‘유정’을 대입하면 된다. 즉 {가}는 ‘주체지향적’, ‘화자지향적’, ‘여기/지금 지향적’, ‘유정 지향적’

3.5 그 밖의 격조사 교체 현상

다음 서술어 ‘삼다’의 구문은 복잡한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학자들 간의 직관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구문이다. 우리는 어느 한 직관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실제 쓰이고 있는 용례를 다 인정하는 선에서 어떻게 그 현상이 설명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³⁸⁾

운동을 하는 역학체로서의 잠재의미가 파악되고, {를}은 거꾸로 ‘객체지향적’, ‘청자지향적’, ‘과거·미래/저기 지향적’, ‘무정 지향적’ 운동을 하는 역학체로 그 잠재의미가 파악된다. 이 역학적 성격의 대립성이 {가}와 {를}의 쓰임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 제시되는 예들은 한국어에서 ‘목적어 피동구문’으로 알려진 예들로서 우리의 시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 (1) ㄱ. 철수가 공에 손이 맞았어.
 ㄴ. 철수가 공에 손을 맞았어.
- (2) ㄱ. 이러다가 꼬리가 잡히겠는걸.
 ㄴ. 그러다가는 꼬리를 잡힐거야.

{가}와 {를}의 대립 양상은 다음과 같은 부사의 삽입을 통해 검증해 볼 수도 있다. 화자의 의도를 겉으로 드러내는 ‘일부러’, ‘고의로’ 등은 {를}과 잘 어울리고, 비의도성 부사 ‘저절로’, ‘자신도 모르게’ 등은 {가}와 잘 어울린다. 이것은 {를}이 객체지향적이기 때문에 타동성의 장력이 부족한 ‘잡히다’의 서술성을 목적어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보상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홍기선(1992)의 ‘결정자’, ‘피결정자’ 개념을 참고할 수 있다.

- (3) ㄱ. 철수는 고의로 영희한테 발목을 잡혔다.
 ㄴ. 철수는 저절로 영희한테 발목이 잡혔다.
- (4) ㄱ. “철수가 의도적으로 사귀기가 쉽지 않다.”
 ㄴ. 철수를 의도적으로 사귀기가 쉽지 않다.

38) 필자의 관찰과 경험에 의하면, ‘삼다’ 구성에 대한 세대간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개별적인 관찰이지만, 일흔이 넘으신 소두영 선생님은 ‘N₁-을 N₂-로 삼다’ 구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고, 오히려 ‘N₁-으로 N₂-를 삼다’ 구성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필자와 같이 젊은 층에게는 둘다 가능한데, 전자

- (1) ㄱ. 어머니는 영화를 며느리 삼으셨다.
 나. 어머니는 영화를 며느리로 삼으셨다.
 ㄷ. 어머니는 영화를 며느리를 삼으셨다.
- (2) ㄱ. 김선달은 하늘로 지붕을 삼고 팔도강산을 돌아다녔단다.
 나. 김선달은 하늘을 지붕을 삼아 다녔다.
 ㄷ. 김선달은 하늘을 지붕 삼아 다녔다.

위와 관련하여 소위 격조사 {로}와 {를} 그리고 {Φ}(=생략)의 교체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적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순조(1994)는 {로}가 {를}로 승격된 것으로 보았다. 그가 설정한 승격(promotion)의 유형 즉, 담화적 승격, 동화적 승격, 성분간 승격 중 마지막에 해당한다. 우리가 한국어 조사 체계의 질서를 수립한 결과로는 {로}와 {를}이 교체관계에 놓이는 동일한 지위의 요소가 아니므로, 우순조(1994)의 승격의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단순히 기존 논의에서 보여준 교체관계로 파악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우순조(1994)에서도 {가}와 {를}을 격조사 계열로 보고 격조사들간의 위계를 설정하여 그들간의 교체관계를 승격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엄격한 의미에서 교체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

쪽이 좀더 자연스럽게 널리 쓰이는 것 같다. 옛말투의 성경인 대한성서공회 발행 『한글판 개역 관주 성경전서』와 성서교재간행사의 『현대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 (1) ㄱ.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17)

권재일(1998:191)에서도 구문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 (2) ㄱ. 나라혼 百姓으로 根本을 삼고 (두시언해초간 16:19)
 나.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그가 설정한 위계구조에 따르면, ‘며느리로’가 ‘며느리를’로 승격된 것은 ‘성분간 승격’이고, ‘며느리를’이 ‘며느리는’으로 승격된 것은 ‘담화적 승격’이 되는데, {를}의 {가}로의 승격은 {로}와 {를}의 지위상의 차이와 평행하므로 성분간 승격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 문제는 {를}과 {는}의 지위가 {를}과 {가}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고, ‘며느리로-²{를, 는}’의 연쇄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다.

둘째로, 임홍빈(1972, 1995)은 ‘며느리로’가 ‘며느리를’로 성분주제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나 {를}도 주제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는}만이 주제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잘 지적했지만, 이들의 동일 부류성을 인식하는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 같다.³⁹⁾

셋째로, {로}에 {를}이 첨가된 ‘로를’ 형이 만들어진 후에 {로}가 생략되어 ‘며느리를’이 되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를 대표하는 홍재성(1989)의 주장은 우리의 입장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그에 따르면, 예를 들어, ‘며느리는 삼았지만’에서의 ‘며느리는’은 ‘며느리로는’에서 ‘로’가 생략된 결과라는 주장인데, 우리의 입장은 {로}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로}라는 문법관계 표지가 필수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영형태의 문법관계 표지 { Φ }에 의해 ‘며느리’의 격이 분화되고 거기에 다시 {를}이 교착되었다는 것이다.⁴⁰⁾ 따라서 생략이 아니라 {로}와 { Φ }의 교체로 파악하자는 주장

39) 주제화 요소로서의 {가}, {를}과 격조사로서의 {가}와 {를}을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목정수(1998ㄷ)를 참조할 것.

40) 이러한 입장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는 박승빈(1935)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설명을 따르자면, ‘부산을 간다’의 ‘을’은 ‘예를’이 발음의 편의를 위해 ‘엘’이 되고 다시 ‘예’가 생략되어 ‘부산을’이 된 것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를}이 결합한 성분 즉, ‘부산을’은 직접목적어가 아니라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서격’이라 했다. ‘부산-에-를’에서 ‘부산-을’의 도출과정을 인식했다는 측면에서 해안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부산-을’을 부서격이라 한 것은 {를}이 어떤 통사적 기능을 표시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기

이다. 따라서 (1ㄷ)은 다음과 같은 변이형들의 하나로 파악된다.

- (3) ㄱ. 어머니는 영화- Φ_1 -를 며느리-로- Φ_2 삼으셨다.
 ㄴ. 어머니는 영화- Φ_1 -를 며느리- Φ_1 - Φ_2 삼으셨다.
 ㄷ. 어머니는 영화- Φ_1 -를 며느리-로-도 삼으셨다.
 ㄹ. 어머니는 영화- Φ_1 - Φ_2 며느리-로- Φ_2 삼으셨다.
 등등.

넷째, 우형식(1998)은 격표지 교체의 유형을 상하적 교체, 수평적 교체, 복합적 교체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그는 표면에 실현된 격조사류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며느리로 삼다’와 ‘며느리를 삼다’의 교체는 상하적 교체에 속한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유형의 출발은 격의 유형을 구조격(=주격, 대격), 의미격(=보충격), 부가격으로 나누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⁴¹⁾ 그 논의에 대한 비판은 격표지 교체 유형이 아니라 격의 유형 분류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의 격 유형은 생성문법의 구조격, 내재격과 거의 다름이 없고, 여전히 {가}와 {를}을 구조격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각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은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겠다. 마찬가지로 다음 예문 (4)의 교체 현상도 {에}는 보충격이고 {를}은 구조격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상하적 교체’로 설명하는 것이 되는데(우형식(1988:241)), 여전히 (5ㄱ, ㄴ)에서 처럼, {에}와 {를}의 연쇄형이나 {에}의 생략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4) 그는 오늘 집회{에, 를} 참석했다.
 (5) ㄱ. 오늘 집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만류하는 바람에.
 ㄴ. 철수야, 집회 참석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하는 거 알지?

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다.

41) 최동주(1997)의 시각과 유사하다.

4. 결론

4.1 종합: 격조사 교체에 대한 새로운 반성

한국어 조사류를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격조사 계열과 담화적 기능, 즉 限定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조사 계열로 구분하는 질서 속에서, 서론에서 제시한 격조사 교체—(1) 철수에게 ∞ 철수가, (2) 코끼리의 ∞ 코끼리가, (3) 철수에게 ∞ 철수를, (4) 철수가 ∞ 철수를, (5) 호박죽이 ∞ 호박죽을, (6) 읽기가 ∞ 읽기에— 현상은 기존의 논의가 보여 준 바대로의 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새로운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현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왜냐 하면, 교체 관계로 설정된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론 부분의 예문 (3)에서 ‘철수에게’의 격조사 {에게}는 ‘철수를’의 한정조사 {를}과 문법적으로 동일한 지위의 요소가 아니므로 그들간의 대립관계는 설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4.2 전망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어 조사류의 새로운 질서를 토대로, 기존에 한국어의 특징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논의들—‘주제부각형 언어’, ‘이중주어구문(=주격중출구문)’, ‘이중목적어구문’, ‘조사 교체’ 등등—이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 위에서 보면, 기능동사(=경동사) 구문의 문제라든가, 형태론과 통사론과의 경계 문제 등 문법의 제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이러한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의 현상들을

얼마나 매끄럽게 명시적으로 설명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 열려진 문제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고에서 주장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새로운 언어학적 문제가 발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전제조건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끝으로 한국어의 조사 체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동일 부류를 이루고 있는 {가, 를, 도, 는}의 문법적 지위를 한정사(=관사)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한국어 문법틀의 변화는 물론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언어 자동처리에서의 알고리즘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재일(1989), “조사의 성격과 그 생략 현상에 대한 한 기술방법”,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권재일(1987), “문법범주 실현의 다양성에 대하여”, 한글 196, 한글학회.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권재일(1998),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 김선웅(1996), “한국어 주격 목적어 연구”, 언어 21-1·2, 한국언어학회.
- 김세중(1994), 국어 심리술어의 어휘의미구조,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진형(1995), “중세국어 보조사에 대한 연구 -목록 실정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136, 국어연구회.
- 김홍수(1989), 현대국어 심리통사 구문 연구, 탑출판사.
- 남기심(1986), “서술절 설정은 타당한가”,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남지순(1996), Classification syntaxique des constructions adjectivales en corée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목정수(1989), 불어의 容形관사 연구, 서울대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 목정수(1998-1), “한국어 조사 {가}, {를}, {도}, {는}의 의미체계 -불어 관사와의 대응성과 관련하여-”, 언어연구 18, 서울대학원 언어학과.
- 목정수(1998-2), “기능동사 ‘이다’ 구성의 쟁점”,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 목정수(1998-3),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 언어학 23, 한국언어학회.
- 박승빈(1935), 朝鮮語學, 조선어학연구회.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관계와 논항구조”, 국어연구 123, 국어연구회.
- 박철우(1996), “국어의 문장 화제 -이중주어구문과 관련하여-”, 언어연구 14, 서울대학원 언어학과.
- 박형달(1973), “현대한국어의 보조동사의 연구 -기능적 언어분석의 시론-”, 언어학 1, 한국언어학회.
- 선우용(1994), “국어조사 ‘이/가’, ‘을/를’에 대한 연구 -그 특수조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124, 국어연구회.
- 송석중(1993), 한국어 문법의 새 조명, 지식산업사.
- 양인석(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탑출판사.
- 양인석(1973), “Semantics of Delimiters in Korean”, 어학연구 9-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양정석(1995),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 이론, 박이정출판사.

- 연재훈(1994), Grammatical relation changing constructions in Korean: a functional-typological study, Ph. 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 연재훈(1995), “격표지 유형론과 여격주어 구문”, 제22회 국어학회 공동 연구회 발표논문.
- 우순조(1994), 한국어의 형상성과 관계표지의 실현양상,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우순조(1995), “내포문과 평가구문”, 국어학 26, 국어학회.
- 우순조(1997), “‘계’의 통합적 분석 -문법적 기능, 통사 층위, 형태론적 지위-”, 언어학 20, 한국언어학회.
- 우형식(1995), “연결이론에서의 격표지 교체 분석”, 애산학보 17, 애산학회.
- 우형식(1998), 국어 동사 구문의 분석, 태학사.
- 유현경(1996), 국어 형용사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이남순(1988), 국어의 부정격과 격표지 생략, 서울: 탑출판사.
- 이향천(1991), 피동의 의미와 기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동훈(1991), “격조사는 핵인가”, 주시경학보 8, 탑출판사.
- 임동훈(1996), 현대 국어 경어법 ‘-시-’에 대한 연구, 서울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 임동훈(1997), “이중주어문의 통사구조”, 한국문화 1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임흥빈(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국어연구회.
- 임흥빈(1996), “양화 표현과 성분 주제”, 이기문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임흥빈(1997), “통사적 연구의 반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한국 인문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강연회 발표논문집.
- 최동주(1997), “현대국어의 특수조사에 대한 통사적 고찰”, 국어학 30, 국어학회.
- 허웅(1983),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 홍기선(1992), “연결이론과 한국어 연구”, 주시경학보 10, 탑출판사.
- 홍재성(1989),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
- 홍재성, 김현권 외(199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 사진, 서울: 두산동아.
- 홍용철(1994), “융합이론과 격조사 분포”, 생성문법연구 4-1.
- Ahn, H.D.(1988), Preliminary Remarks on Korean NP, ms.
- Boone, A. et A. Joly(1996), Dictionnaire terminologique de la systématique du langage, L'Harmattan.
-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

- Culioli, A.(1977), Note sur 'détermination' et 'quantification': définition des opérations d'extraction et de fléchage, Univ. Paris 7.
- Curat, H.(1982), La locution verbale en français moderne: Essai d'explication psycho-systématique,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 Derrida, J.(1967), De la grammatologie, Les Editions de Minuit.
- Grimshaw, K.(1990), Argument Structure, MIT Press.
- Guillaume, G.(1919), Le problème de l'article et sa solution dans la langue française, Paris: Hachette.
- Hewson, J.(1972), Article and Noun in English, The Hague · Paris: Mouton.
- Hong Y.Y., Hong K.S., Sohn, Y.S.(1996), "Case Alternation of Korean ECM Constructions", 언어 21-1 · 2, 한국언어학회.
- Kleiber, G.(éd.)(1987), Rencontre(s) avec la généricité, Paris: Klincksieck.
- Martinet, A.(1970), Elément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Librairie Armand Colin.
- Martinet, A.(1971), Langue et Fonction, Paris: Médiation.
- Radford, A.(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ford, A.(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ford, A.(1997), Syntactic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 A minimalist approach, Cambridge.
- Tesnière, L.(1959), E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Klincksieck.
- Wilmet, M.(1983), "Les déterminants du nom en français -Essai de synthèse", Langue française 57.

목정수(Jung-Soo Mok)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강사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1-17

Tel : 02-514-6533

E-mail : heunmok@netsgo.com